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고조

2015
AUTUMN
VOL.039



AUTUMN THEME 향(香)에 취하다

만물이 여물고 안정을 찾아가는 계절, 가을
가을만이 전할 수 있는 고유한 향기를 담아내고
이와 같은 사람들과 성숙한 대한민국을 그려보다.

Hello, I am Jenete from the Philippines working to keep the National Assembly, a place where those representing the Korean people are working, clean. Working in this place playing a pivotal role in growing the country and meeting and watching many people, I also feel a lot of things. And hope placed in me grows as well. Also today, I am living hard while playing a role given to me. I mean I am grateful for more peaceful life than before and expect my dream to spread more widely in the near future. My dream is to live a happier life a long time with my lovely daughter in Korea.

Jenete P ehavez

1967년, 필리핀 출생

오랜 한국 생활로

한국어에 능통한 그녀는 5년 전부터

국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특출한 요리 솜씨를 자랑하고

이를 선보일 수 있는 자신의 가게를

여는 것을 소망하고 있으며

동물사육사가 꿈이라는

사랑스러운 딸과 한국에서 오래도록

살아가고 싶다는 그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곳,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가 바로 주인공이다.



깊어가는 가을
성숙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In the midst of autumn,
we continue to pave the way for
better future

● <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과 광복절이 지나고 어느덧 바람은 선선해지고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노을과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낭만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법무부는 신임 김현웅 장관님의 취임 이후 장관님의 믿음의 법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광복 70주년에 즈음하여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공을 기리는 의미로 지난 8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30여 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여 조국독립을 위한 믿음에 '믿음의 법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제는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그간 신임 장관님의 믿음의 법치 정신에 따라 추진중인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가을을 몸과 마음 가득히 즐기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했던 일들이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이 되길 기원합니다.

● Greetings to all reader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The record sizzling summer days and Korea's Independence Day (August 15th) passed. Wind gets crisper and cooler and the days are drawing in. Now, autumn, the romantic season of a flaming sunset and leaves, is fast approaching.
Since the inauguration of Minister Kim Hyun-woong,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endeavoring to convert his determination to establish 'Rule of law based on trust' into action. Around Korea's Independence Da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lso hosted several events to pay tribute to the spirit of patriotic martyr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our homeland's independence; on August 12, 2015, Minister Kim Hyun-woong hosted a ceremony for awarding the certificates of nationality to thirty descendants of the patriotic independence activists. Through these events, we gratefully replied to their belief in Korea's independence with Minister Kim Hyung-woong's determination to establish 'Rule of law based on trust'.
As we enter autumn, the season of harvest, we will further devote ourselves to the fruition of diverse efforts that we have been making in line with the determination, 'Rule of law based on trust'.
I hope everyone in Korea to enjoy and cherish Korea's wonderful autumn wholeheartedly. And may all the efforts you have been exerting for making your wishes come true bear fruits in this autumn season.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Young-june 김 영 준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immigration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계간 <共ZONE> 2015 가을호 통권 제39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15년 9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세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02	나도 한국대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곳, 국회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인공 Jenete P ehavez, 그녀가 꿈꾸는 코리아 드림
04	EDITOR'S MESSAGE
06	담장 너머 최고의 도서관을 지향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수장 성정희 관장이 말하는 등화가친의 계절 가을의 향(香)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독서
08	뿌리 깊은 여행 뜨거웠던 태양열은 식어가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어느 날 도심 속 순례길의 여정에 오르다, '한양도성길 IN SEOUL'
14	가을날의 초대석 <비정상회담>의 새로운 멤버 중 다채로운 표정과 화려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남자, 고대문명의 발상지이자 지혜의 나라 그리스에서 온 26살 청년 '안드레아스'가 풀어놓는 이야기
18	THE K-FOOD 가을을 담은 오곡의 향연 '연잎밥'
20	한강의 기적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예의'
23	사(史)적인 시간 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한국인들을 계몽시킨 사회개혁가이자 독립을 위해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했던 '호머 힐버트(Homer Hulbert) 박사'
24	명장면 국어사전 사극 속 예스러운 표현으로 사랑을 전하다. '은애하다'
26	발견의 미학 '한국식 인사'는 다르다. 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28	출입국 Q&A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편리한 민원 해결을 위한 '우편민원 접수제도'
30	LIVE ON KOREA 순국선열의 공적을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그 역사적 현장을 담아냈다.
34	共ZONE 마당
	INSIDE KIS
02	출입국 NEWS
04	통계로 보는 출입국 꿈을 키우고 펼치는 외국인 유학생 · 전문인력
06	출입국 25시 전자비자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10	출입국 스타 최우수심사관의 명예를 세 번 연이어 수상한 베테랑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인향 · 조의재 반장'
12	출입국 정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정책
16	전문가 기고 성공적인 우수인재 국내유치를 위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방안

가을의 향(香)에 취하다

시추적우제 時秋積雨霽 때는 가을이 되어 장마도 마침내 개이고
신량입교허 新涼入郊墟 서늘한 바람은 마을에 가득하다
등화초가친 燈火稍可親 이제 등불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간편가서권 簡編可舒卷 책을 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부독서성남시 符讀書城南詩 부야, 성남 가서 책을 읽어라」

폭염 을 일삼던 기세 좋던 긴 여름이 한결을 물러선 즈음입니다.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가을을 재촉한 비가 조금 더 빨리 가을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높고 청명한 하늘, 아침저녁으로 사뭇 달라진 공기가 마음을 안정되게 합니다.

흔히 가을을 일컬어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唐)대의 대문호이자 사상가이며 정치가인 한유(韓愈, 768~824)가 18세가 된 아들 창(昶)에게 독서를 권하는 시「부독서성남시 符讀書城南詩」의 한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남다른 애정으로 자식에게 독서를 권하는 이 시는 시원한 가을의 저녁나절, 등잔불 아래 글 읽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늘 독서에 열중하는 많은 이들을 대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 이들의 표정이나 진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여 숙연해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릴 적의 배우고 익힌 것은 각인되어 커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는 어찌나 재미있었던지... 그러면서도 자연스레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일깨워 주셨던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는 지금의 스토리텔링, 책 읽어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릴 적 책 읽기는 독서 습관의 형성 뿐 아니라 책에서 얻은 교훈과 지식은 인격형성과 지식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독서만큼 훌륭한 교사가 있을까요?

책은 변화의 엔진이고, 세상에 달린 창문이며 시간의 바다에 세워진 등대입니다. 또한 책은 동료이자 스승이며, 미술사이고 정신의 보물을 보관하는 은행입니다.

시원하고 어둡이 길어진 가을밤,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 연인들과 독서삼매경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시기를 권합니다. 어느새 마음이 치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나가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성정희 그녀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부서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관장직에 올랐다. 국가정책도서관이자 동시에 책과 함께 하는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감성도서관을 표방하기 위해 도서관을 위한 일이라면 열 일 마다 않는다.

한양도성길 IN SEOUL

가을로(路)

도심 속 순례길을 걷다

눈을 어지럽히는 끝없이 이어진 차들의
빨간 불빛들, 해석 불가능한 수 만 개의 소음들.
모든 것이 제각기 목적을 위해 바빠 움직이는 이 도심 속
내면의 성지를 찾아 떠나는 순례길이 공존한다면
이는 과연 우리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노을이 유난히도 붉게 타오른다.
거리에 흐르는 낙엽에 시선이 사로잡힌다.
그래, 가을이다. 모든 것이 마음의 풍경으로 그려지는 가을날
발아래 놓여진 길을 따라 한없이 걷는다.
한걸음 내딛을 때마다 뒷모습에 자리 잡는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

글 김초록 사진 이영균 사진제공 한양도성도감

A nation rode. A new era was declared.



Fortress Wall of Seoul where The King Taejo Lee Sung-gye establishing the Joseon Dynasty constructed after deciding Hanyang as a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is a fortress surrounding Hanseongbu, a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so was built along 4 mountains surrounding a capital city to defend the whole capital. 4 gates were built in north, south, east, and west of this capital city, and are Heunginjimun Gate, Donuimun Gate, Sungnyemun Gate, and Sukjeongmun Gate. Length of this fortress continued along mountains with these 4 gates as the center is 18.627km, and a walking trail along this is called Seoul Fortress Wall Way.

‘Sungnyemun Gate’, a Front Gate of Seoul Fortress Wall, where a king came in and out in those remote times



Seoul Fortress Wall Way more than about 18km consists of total 6 sections with 4 gates as the center.

Because it is impossible to walk the whole way a day, walking for two days is recommended. In addition, departing from Sungnyemun Gate, a front gate of Seoul Fortress Wall and the nation’s first national treasure, is the meaningful beginning to everyone such as local residents and foreigners. Sungnyemun Gate where is located in the south among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so is the South Gate of Seoul is a castle gate used for access to a capital city, so played a role of the country meeting and seeing off foreign envoys, and now, is maintained as the nation’s first national treasure. Because this gate is the front gate of the capital city, this gate is biggest and most splendid among 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In 2008, Sungnyemun Gate met with an unexpected accident like getting cloaked in flames, but after five-year-long repair work, this gate shows its dignity in front of people as before. In addition, the left and right castle of Sungnyemun Gate demolished on visit to Korea of Yoshihito, Japanese crown prince, in 1907 was restored in this repair work, so the lost form of Sungnyemun Gate was regained.

The spirit of Kim Koo, an eternal national leader, is witnessed. ‘Baekbeom Plaza’



Baekbeom Plaza located in an approach to Namsan Mountain. ‘Baekbeom’ was named after a nickname of Kim Koo and ‘Baek’ of ‘Baekjeong’ and ‘Beom’ of ‘Beombu’, the lowest and most ignorant class at the time, so desired to make humble Baekjeong and ignorant Beombu become a patriot like him. Kim Koo became the spearhead of an independence movement, and especially, tried to stop a national division in the chaos. After the independence, he was assigned to a premier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ended his life tragically by being shot dead. In This Baekbeom Plaza, the will to become independent at the time and independence fighters’ spirit can be witnessed rather than other historic sites. In this plaza, there are a bronze statue

of Kim Koo called an eternal national teacher, a bronze statue of Lee Siyeong devoting himself to the training of an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a Memorial Hall for Ahn Junggeun shooting a main instigator invading his homeland in face of danger. This means a great deal. A place of Baekbeom Plaza is the whole area a castle was originally lasted from Sungnyemun Gate, bu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Japanese Empire pulled a castle down, and established Joseon Jingu, the religious facilities. However, Joseon Jingu symboliz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demolished, and Baekbeom Plaza was made as a shrine of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Namsan Mountain’ where dim love and faint youth romp



Namsan Mountain where is located in Hoehyeon-dong 1-ga, Jung-gu, Seoul and is about 270m in height is located in the south of a capital city, so is called Namsan Mountain. This mountain is with Bugaksan Mountain, Naksan Mountain, and Inwangsan Mountain taking responsibility for 4 perimeters of Seoul Fortress Wall, and is a scenic place from old times, so is reported that several classical scholars lived. This mountain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so facilities such as Namsan Cable Car and Namsan Library have been founded since 1960s, so this mountain became the present Namsan Park. Namsan Park is the widest city park in Seoul, and is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To write this, a central point of Seoul is installed in the top of Namsan Mountain. Many people’s memories are settled as one scenery in Namsan Mountain. The things such as many locks lovers kept, swearing an instant love, and laughter of children who dressed same-colored clothes and moved,



setting a line by a teacher's singing also give people visiting Namsan Mountain memories.

**Interrupted way became the new lives
'Jangchung-dong Residential Area'**



Going down along a fortress lasting from Namsan Mountain, a castle wall is missed with Jangchung Gymnasium as its starting point. Modern-style houses already occupy an interrupted castle wall way by making an owner's look of own land. Whil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a leader of Japanese colonialization, developed this whole area, the form of Seoul Fortress Wall disappeared. Going along a way where there may be a fortress, it can be seen that pieces of the fortress that did not fall apart are remained as fences or embankment of modern-style houses under modern-style houses. In addition, it can be discovered that these pieces not are a boundary line protecting the center of one country anymore but protect the lives with all they might.

'Naksan Park', the moment when rolling of a sunset makes a heart wake



Naksan located in the East among 4 perimeters of Seoul Fortress Wall is also called Taraksan, because this takes after a back of camel. Highlight of a first day course is definitely this place. This improperly delicate mix itself that fortress connected to a ridge and Seoul looked down at a glance under this

fortress make makes a new scenery. Especially, this place is also known as an attraction of sunset and night view, and many people visit this place uneventfully. The scene that the sun sets, making a sunset waving to a mountain located in the West also makes a heart of a person seeing this wave. In a fortress of this park at sunset, the light is turned on. This panorama is also a magnificent sight. Under light going up along a wall and sky coming down darkly, lights releasing by thousands of lives mingle, so make the Milky Way on the ground.

'Jangsu Village' that interest in people and each other made



Ascending to Naksan Park, a little village facing a castle wall can be discovered. History of the village set out from the Korean War, and this village was named 'Jangsu Village', because many people over 60 lived. Because of falling behind of the village, redevelopment would be conducted, but was halted by many people's opposition and accord, and a village recovery service was started. Through talent donation, young artists painted a mural in an outer wall of a house, and attached to the front of stairs by making a ttakji-shaped thing, so created a pedestrian-friendly 'Ttakji Way'. A little cafe located in the corner of the village is also a place young people manage, so some profits are used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village, and this cafe also sells things such as home-made jam of old women in Jangsu Village, so is used as an earning window of senior citizens who is difficult to work.

Jangsu Village is really full of youth and vitality.

Jangsu Village was recreated by the village young people touch, other young people going sightseeing to this village, and interest in a person by jumping over age and each other who should live together.

'Heunginjimun Gate', the most visited gate among 4 g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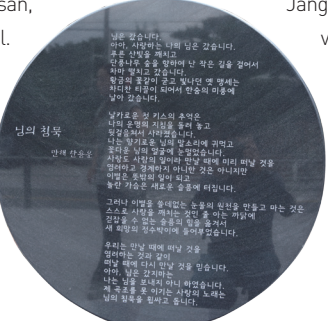


Heunginjimun Gate where is called 'Dongdaemun Gate' because this gate is located in the East gets settled in a low tract, so was designed as Ongseong, a semicircular double-wall to be easy to defend and attack. It is recommended that going up Naksan Park, daytime Heunginjimun Gate is seen, and coming down again after watching a night view of Naksan Par, so this gate is looked around. Night Heunginjimun Gate where gets settled in the middle of a major transportation point so is in a lot of spotlight and boasts grandly has a value to see again. In Jongno 6-ga where Heunginjimun Gate is located, there are various markets including Dongdaemun Market, Dongdaemun Design Plaza where is the biggest multi-display place embodying a spaceship, and Cheonggyecheon Stream, the river crossing the downtown. Therefore, this gate is the most visited gate among 4 gates, so Seoul called 'the City that Never Sleeps' can be felt here.

The song of love, overcome by its own melody, wraps itself around the silence of love. 'Han Yong-un Simuja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following day of pilgrimage of Seoul Fortress Wall Way sets out from Seongsu-dong. This fortress way between Bugaksan and Inwangsan connecting to the West is about 9km, so about 6 hours are needed. Recovering composure, you start a pilgrimage way, looking



around an old house area of Seongsbukdong. Many old houses are still remained in Seongsbukdong, and among them, there are houses where history was carved in full. One of them is Han Yong-un Simujang. Han Yong-un was one of 33 independence declaration initiators, so wrote the third chapter of 3.1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imujang is the place where he lived in his latter years. Characteristic of this place is that the house faces north. Generally, a house is built toward the south, but Han Yong-un did not want to face Japanese General Government Building, so his house was built toward the north. Like this, his strong will to become independent reached the climax through poem, and a representative poem is 'The Silence of Love' that he wrote, bearing Japanese invasion in mind. This poem imparts with mournful style of writing that a hope of meeting should not be lost in spite of farewell, and included the will to become independent.

Sukjeongmun Gate



Sukjeongmun Gate, the north gate of Seoul Fortress Wall,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Bugaksan ridge. This gate is located in the north, so was built to assort of 4 gates rather than playing a role of a gate to pass. Bugaksan where Sukjeongmun Gate is located has been talked about a beautiful spring scenery, so children and women did a spring flower viewing here from old times.

‘Yun Dong-ju Hill’, the place where I become a poet involuntarily

Following Bugaksan Fortress Way during about 3 hours, people arrive



at here before they know. Here is ‘Yun Dong-ju Hill’ with traces of Yun Dong-ju who lived briefl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but remained haunting poems on Korean’s memory more than anybody else. He was one of a few poets called a highly-gifted poe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o has been held in high esteem through subjects such as human life and agony, and own lyricism. This place was made as a hill of a poet, because he thought a poetic concept, walking along this area, and Literary House was built to celebrate his history of literature. If a side of his agony is examined by visiting Literary House, a tombstone with a poem is appreciated on the hill, and you walk along a way where a pinwheel flutters, a phrase of a poem begins to swim on mind.

Inwangsan



About 339m-high Inwangsan has a natural scenery that walking trail and fortress way coexisting with a city can stand out most. In the early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is mountain was called the West Mountain, because this mountain is located in the West, but this mountain has been called Inwangsan since the King Sejong period. This ‘Inwang’ is a name of a Deva king protecting Buddhism, so this mountain was named as ‘Inwang’ to protect the Joseon Dynasty. A fortress lasting around Inwangsan is well-preserved as its ancient

form is. However, there is a part to repair as time goes by, so it is discovered that a new stone is put in a castle wall made in old times, if a cross section of the castle wall is closely examined. Inwangsan consists of granite, so its bedrock is exposed. Everywhere of this mountain is like a beautiful Oriental painting. In addition, fortress crossing the mountain and pilgrims can be watched in the top of the mountain, and this has been nothing short to add a magnificent view.

History becomes a trace and today’s foundation. ‘A Site of Donuimun’



Finishing an itinerary consisting of endlessly lasted steps by choosing this place as a destination of pilgrimage can be a limit of pilgrimage in Seoul where is high-tech city and capital of South Korea, and the last optimized for ruminating on the boundary between past and present. Donuimun called Seodaemun Gate as a gate located in the West means a gate developing justice, so played a huge role in maintaining a public order of a capital because of geography. This gate that should be passed to go to the vast earth as a main gateway toward ports such as Mapo and Yanghwa, and Gaeseong, Pyongyang, and Uiju was demolished by a city planning the Japanese Empire carried forward in the Japanese occupation. In 2007, an artist ‘Ahn Kyu-chul’ installed [An Invisible Gate] to remember a site of Donuimun. In those remote times, fortress piled by hand and wooden gate showing a mettle of one country that protected a capital of one country and people living in this capital are nowhere to be found. In this street where especially-high buildings are full, an installation keeping the past place through one side made with plastic is groped. In the last of pilgrimage, past glories are imagined. All lost things making today are thought.

한양도성길 MAP

한양도성길 스탬프 지도

순례의 여정을 더욱 쉽고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한양도성길 스탬프 지도를 이용해보자. 한양도성길의 지리와 각종 정보가 그려져 있는 이것은 여행객이 지도로 활용하며 가지고 다니다가 각 중요 구간에 도착했을 때 일종의 방문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스탬프 지도는 흥인지문 관리소, 말바위 안내소, 강북삼성병원 정문 보안실, 승례문 초소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완주기념배지를 받을 수 있다. 흥인지문 관리소 02) 2148-4166 말바위 안내소 02) 765-0297



북악산

숙정문이 위치해 있는 북악산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다른 구간의 길과 달리 입장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입산이 불가하다. 또한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입산이 가능하다. 방향에 따라 사진촬영제한이 있으니 이에 주의해야 한다. 숙정문 안내소 02) 747-2152



남산 케이블카

해발 270여 미터에 해당하는 남산은 어린 아이나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상 부근까지 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서울 시내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케이블카 승강장은 남산 아래 백범광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고 케이블카는 신분 간격으로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왕복 8,500원 성인편도 6,000원이며 소인왕복 5,500원 소인편도 3,500원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산1-19 02) 753-2403



덕수궁

돈의문 터와 승례문 사이에 위치한 덕수궁 돌담길은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그 풍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길이다. 고즈넉한 고궁의 분위기와 어우러진 길은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사색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덕수궁은 오후 9시까지 상시 야간개장을 하고 있으니 어둠이 내려 앉아 더욱 빛나는 덕수궁 야경을 놓치지 말자. 5대궁 통합관람권(대인 10,000원)을 구매하면 덕수궁을 포함한 4대궁과 종묘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9 02) 751-0734



한양도성길 Map



가슴 펴고! 인상 펴고! 그대는 빛나는 청춘!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플로스(Andreas Varsakopoulos)

〈비정상회담〉의 새로운 멤버 중 다채로운 표정과 화려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남자. 그리스 대표로 활약 중인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플로스(Andreas Varsakopoulos)이다. 고대문명의 발상지이자 지혜의 나라에서 온 26살 청년이 풀어놓는 이야기는 숨 쉬듯 자연스러웠고, 불현듯 열정적이었다. 이야기의 무대 또한 한국이 되었다가 지중해의 그리스,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바뀌며 흥미진진하게 바뀌었다. 방송에서 못다한 안드레아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글 황지혜 사진 이영균 · JTBC 촬영협조 충북대학교

9월부터 충북대학교에서 출강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그전까지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강의를 하다 충북대 초빙객원교수로 2학기부터 교양영어 강의를 맡았어요. 오늘로 딱 일주일일 됐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출근을 하니깐 진급한 기분이 들어요. 강의는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는데 학생들 분위기가 달라서 아직 적응 중이에요.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칙도 지켜야 하고... 규칙이 많아서 뭔가 자유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 대학교는 서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개성도 있고, 남녀가 함께 수업도 듣고요. 전에 있던 세광고가 남고였어요.

그리스에도 남고, 여고가 있나요?

그리스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명문 사립고 중에는 남고, 여고가 따로 있지만 보통 국립학교는 대부분이 함께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남고에 근무하면서 신기했어요.

학생들 보면 학창시절이 떠오를 텐데, 안드레아스는 어떤 학생이었는데 궁금하네요.

고등학생 때까지도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만 집중을 잘한 학생이었어요. 운동 머릿속에 축구뿐이었죠. 그러다 대학생이 되고부터 조금 달라졌어요. 축구선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진로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고등학생 때 축구팀 코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나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표정도 좋았고, 제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그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 한국까지 오게 됐네요.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는 게 가장 컸죠. 새로

운 언어를 배우는 건 제게 너무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에요. 보통 언어를 배울 때는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3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그 중 한국을 선택했죠. 순전히 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기회가 왔을 때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느낌이 왔었어요. 그리고 2012년 8월, 한국에 왔죠.

혹시 '삼포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의 20대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는 어떤가요?

그럼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빗댄 말 맞죠? 그런데 요즘은 삼포 말고, 사포, 오포세대로 있던데? 고등학교 제자들은 대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하던데, 대학교에 오니까 학생들이 취직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취업률이 낮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건 그리스도 비슷해요. 그리스 친구 중에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
앱북 〈共ZONE〉에서
동영상을 통해
안드레아스를 직접 만나보세요.





요. 실직한 친구도 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친구가 많아요. 취업준비생이 되기 보다 대학생으로 남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졸업을 미루기 시작한 경우도 많죠. 학사를 7~8년씩 다니는 친구도 많아요. 한 친구는 공무원이 되고 싶는데 한참 기다려야 해요. 지원자가 많아서인데 그리스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계속 스펙을 만들고 있어요.

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두 나라의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그래서 또 재미있는 일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저만 보더라도 그리스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그러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문화를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죠. 그 전까지 한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들은 생각이 너무 많고, 또 현실이 어렵다며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은 이루기 어렵더라도 큰 목표나 꿈을 '겨냥'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나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요.

한국에서의 20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생활은 어떤가요, 만족스러운가요?

여전히 축구를 사랑해요. 축구회 회원들과 만나서 땀흘리며 운동도 하고, 끝나면 다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갈매기살을 안주 삼아 친구들과 1차부터 시작해 4차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흥 많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가 진짜 좋아요. 20대에만 느낄 수 있는 재미일 거 같아서요. 일이 없을 때는 여행을 자주 다녀요. 요즘은 바빠져서 자주 가지 못하고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주를 추천하고 싶어요. 청주에 오시면 꼭 둘러보셨으면 하는 곳은 상당산성이예요.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계곡을 둘러 돌로 쌓아 만든 산성으로, 꽃도 예쁘게 피었어요. 호젓하다, 이 단어가 맞죠? 조용하고, 경치가 좋아서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아요.

언어에 남다른 관심이 많은 당신이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지 궁금해요.

특히 저는 동양권 언어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자를 쓰는 중국어, 일본어와 다르게 한글은 모양 자

체가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발성도 신기했고요.

한국어 실력을 키운 남다른 비결이 있었다고요?

축구가 아니었다면 한국어가 이만큼 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축구팀을 찾았어요. 이후 축구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몰랐던 때라 팀원들이랑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 중에도 통하지가 않고요. 답답한 마음에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팀원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메모장에 적어두고 집에 와서 뜻을 찾아봤어요. 또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를 미리 번역기로 알아두고 메모해 두고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외우기를 반복했죠. 적절하게 단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바로 활용하고요. 제 한국어는 '생활 한국어'죠. 하지만 정규수업을 받지 않아서 아직도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한국생활 3년차,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한가지 있어요. 청주에서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하는 식당을 아는데 자주 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제겐 정말 불편

하거든요. 음식은 진짜 맛있는데 먹는 도중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몸이 힘들죠. 하루 빨리 그 식당이 식탁과 의자를 놓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아스는 한국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데요, 적응을 위해 도움을 준 친구가 있나요?

외국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도 많지만 정말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청주출입국사무소죠. <비정상회담>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방송동의서를 구할 때도 직원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구비서류도 많고, 과정도 복잡했는데 직원들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제가 해야 할 일과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주고 챙겨줬어요.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출입국 사무소를 가면 해결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방송 일이 처음일 텐데 <비정상회담>을 보면 전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니예요. 첫 녹화 때 긴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토론이다 보니 제가 맞지 않은 말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녹화를 계속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또 얼굴 표정이나 몸 동작을 크게 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봐주시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 원래 리액션이 좋은 편이

예요. 상대방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바로 표현하죠.

최근 <비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제결혼과 그로 인해 야기된 가정 내 다국적 문화 현상에 대해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주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그리스인, 어머니가 미국인이예요. 그래서 국적이 두 개죠. 어릴 때 어머니는 영어, 아버지와 친구들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단순히 언어만 다르게 쓴 것이 언어에 뿌리를 둔 그 나라의 문화나 사고방식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그리스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리스에서는 '아메리카나끼', 미국사람이라고 불리고, 반대로 미국에 갔을 때 별명은 '더 그릭 가이'였죠. 저의 다른 면 때문에 사람들이 제게 호기심이 많아요. 저도 두 나라의 문화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들려줘요. 둘 다 제게는 '우리나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한 것, 그것이 삶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해요.

우리집에는 미국과 그리스 문화가 공존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새로운 것을 미국 관점, 그리스 관점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국인 그리스 문화와 미국 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인해 그

리스나 미국 친구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요.

안드레아스의 최종 꿈이 궁금해요.

제 직업은 선생님이지요. 방송도 재미있지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학생이예요. 미국 보스톤대 외국어교육학 석사과정을 휴학 중이예요. 궁극적으로는 언어학과 교수가 되고 싶어요. 언어학,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인 면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드레아스는 26살 청년답게 SNS 인스타그램으로 세상과 소통한다. 해운대와 충북대 캠퍼스, 방송 스튜디오 등 한국의 곳곳을 사진으로 담으며, 그만의 한국 이야기를 기록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다채롭고, 익살스런 그의 표정들이 색다른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 나라,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대신 말해주는 듯하다. 빛나는 청춘을 즐기면서 자신의 꿈을 '겨냥'할 줄 아는 현명한 20대, 안드레아스의 이야기가 한국의 청년들과 꿈을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명사의 KEYWORD 「나비지오(Navagio)」

Greece, beating the representative tourist attractions of Santorini, the most beautiful beach in the world where 10 'to one of the magazine said. Greece is situated on the southernmost island of Zakynthos island. It is famous because the wreck is still blessed with a beachfront views. The identity of the wreck is kicked out of the Navy was sailing from Greece with a shipwreck carrying contraband smuggler was wrecked here in 1980. Baggio beach and is also referred to as 'Turtle Island'. Summer sea turtles lay their eggs every year to find a beach or Baggio. You can see the shape of turtles leisurely swim in the clear emerald waters below the light. In addition, it is ready for such extreme high-altitude jump Experience Program leaping towards the coast to rely on a rope from the coastal cliffs 200 meters high, many tourists look for.

오곡을 품다, 가을을 담다 ‘연잎밥’

여름 무더위에 맞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몸은 낮아진 기온처럼 조용히 가라앉는다. 노곤해진 몸과 선선해진 바람. 이때 생각나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 줄 모락모락 김 나는 무언가. 흔히들 말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 자체로 한국인의 보양식이 되는 밥과 이 계절, 가을이 만났다. 가을 향 깊게 품은 오곡의 향연을 맛보았다. 글 김초록 사진 이영균 장소 산중다원(02-371-0707)



사진 왼쪽부터 응오티빗, 원해진



베트남의 가을 음식

바잉 쯔(bánh cốm)

더운 나라로만 알려진 베트남에도 북쪽지방에는 사계절의 차이가 있다. 그 중 베트남 가을 대표음식이라 하면 바잉 쯔를 꼽을 수 있다. 초록색의 쌀떡이라는 뜻의 바잉 쯔는 그 해에 수확한 찹쌀을 가지고 떡 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녹두와 생강을 갈아 넣어 만든다. 그리고 위에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곁들여 올린다. 이때 넣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녹두는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풍부하다. 더불어 견과류는 몸에 좋은 지방이 가득하다. 베트남의 가을에는 이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는 바잉 쯔를 만들어 먹으며 조금은 낮아지는 기온에 대비하여 건강을 위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따뜻한 봄에 농사를 시작해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농작물을 키워내며 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이 되면 농작물은 맛 좋게 여물어 농부에게 그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결실을 손에 쥐어준다. 가을에 거둬들이는 곡식은 한 해의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하여 제일 먼저 조상을 기리는 제사상에 올랐다. 그 다음에는 이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을 위했다. 그 중 오곡밥은 다섯 가지 곡물과 밥을 함께 지은 것으로 밥 한 그릇에 오곡의 영양이 가득 담겨있다.

유난히 앳되어 보이는 얼굴의 소유자 응오티빗 씨 그리고 낭창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해진 씨를 어떤 수식으로 덧 붙여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단순한 말 몇 마디로는 온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다채로운 그녀들이기에.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각종 통역봉사과 문화수업 봉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은 모두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한 가정의 식탁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이기도 한 그녀들과 함께 유난히 높은 하늘이 떠 있는 날, 북한산 초입으로 가을먹거리 나들이를 떠났다. 접시 위에 정갈하게 올려진 음식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던 이들은 마치 꽃잎이 피어나듯 연잎이 펼쳐지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곡물들이 수놓은 밥과 동시에 공기중으로 퍼지는 은은한 연잎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놀라움의 순간, 두 사람 모두 처음 꺼낸 말은 “이게 뭐예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였다.

음식은 눈으로 보고 코로 그 내음을 맡고 마지막으로 미각을 이용해 느낀다 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연잎밥’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꽃을 피워내 고결함을 상징한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자생의 밑바탕이 되어주는 것이 연꽃의 땅속줄기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재료인 연근이며 연꽃이 물가에서 유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연잎이다. 연잎의 가장 일반적인 효능은 해독작용이며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고 머리와 눈에 쌓인 열을 맑게 하여 어지럼증이나 각종 출혈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연잎은 또한 항균작용이 탁월하여 예로부터 스님들이 오랜 산행을 떠날 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잎에 밥을 담아 다녔다고 전해진다. 오곡밥을 이용해 만든 연잎밥은 음양오행의 조화에 맞추어 찹쌀에다 밤, 대추, 흑미, 콩, 은행, 잣,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 10가지 곡물을 더해 만든 것으로 여름동안 쌓인 각종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연잎과 그 영양이 최상인 가을오곡이 만났으니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음식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은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응오티빗 씨는 연잎밥에도 김치를 올려 맛스럽게 먹었다. 맵고 강하게 양념된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해진 씨는 자신이 지금껏 먹던 음식과는 판이하게 다르지만 연잎밥이 건강함 그 자체로 느껴진다면 연신 맛있다는 찬사를 보냈다. 눈 깜짝할 새에 매서운 겨울을 데려오는 짧은 계절 가을이기에, 잠시의 순간 그 풍성함을 온전히 느껴보시기를. 오곡을 품어 한 그릇에 가을을 담아 낸 연잎밥을 이 계절, 가을보양식으로 추천한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한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예의’ ‘Manner’, Korean Cultural Gene to Live Well Togethe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2012년 4월에 일반인 천 명을 대상,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키워드 중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다름 아닌 ‘예의’였다. 혹자는 예의가 한국의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근본 그 자체라 말하고 혹자는 예의가 한국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말한다.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은 차치하고 먼저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의’라는 단어가 천 년을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해 오며 여전히 대내외에서 ‘대한민국’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근본, 개념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이다.

글 김초록 참조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주영하 외>

‘예의’의 탄생 또는 발현

흔히들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東邦禮義之國)’이라 칭한다. 현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많은 사람들이 뜻하고자 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함은 ‘예의를 중히 여겨 이를 갖추는 동쪽에 있는 나라’이다. 외신들이 한국을 소개할 때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하며 한국인들의 예의와 이것이 이루고 있는 문화 그리고 넘어서 나라 자체에 경의를 표하는 사례에 비출 때 어 느덧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강력한 표현이 된 것이 틀림없는 이 단어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주류가 되고 있는 설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가리켜 예의를 지키는 군자의 나라를 뜻하며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무역 상인들이 교류 할 때 예의가 바른 한국인들을 보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칭했다고도 하며 또 다른 유래는 공자의 후손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동이열전』에서 공자가 고 조선의 국민들은 예가 밝다며 칭찬하고 그 나라에 가서 예의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에서 기원한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가 사대주의에서 비롯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다양한 유래를 넘어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예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예의(禮義)’는 포괄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도리를 뜻하여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를 나타내며 좁게는 의식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갖추야 할 몸가짐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또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시점부터 발현되어 세계인들이 한국인들



을 칭송하게 만들었을까. 여러 기록물에 따르면 기원전부터 한국인들은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또는 ‘도둑이 없어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며 사람들의 행동가짐이 바르다’고 알려져 있다. ‘예’에 관해서 학문적으로 등장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세워 예를 가르쳤다는 기록에 있다. 이후 고려 말 주자학이 전래되어 주희가 쓴 『가례』가 소개되어 예의의 기반이 세워지고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명으로 성종 5년에 국가의 기본 예제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사계 김장생 선생이 한국 실정에 맞는 예학을 완성했다는 역사가 있다.

Birth or Revelation of ‘Manner’

Commonly, Korea is called ‘the country of courteous people in the East’. The country of courteous people in the East that many people think generally in modern times is ‘the country in the East laying stress on manner and having courtesy’. In this case that foreign presses express their respect to Korean manner, culture this manner makes, and the country itself, there are various theories that are still not agreed about an origin of this word becoming the strongest expression symbolizing Korea. Commonly-known theory becoming the majority is that Chinese used this word meaning a country of a noble man well-mannered about Korea, and other theory is that Italian merchants called well-mannered Korean as this word on merchants’ exchange between Korea and Italy. Other theory is that Confucius praised that people of Gojoseon are polite and said that he wants to learn a manner in Gojoseon in [Dongi Biography] known that Confucius’ descendent wrote. In addition, there is a negative evaluation that this word is derived from toadyism.

Going beyond various origins, if the point this word used as a proper noun of mature Korea want to say, that is, a meaning ‘Manner’ includes is examined, wholly, ‘Manner’ means a duty people should fulfill justly, so means etiquette and loyalty people should keep, and narrowly, means a behavior in ceremony or everyday life. Therefore, when is this born as Korean cultural gene, or if Korean has this from the beginning, when is this revealed so does a citizen of the world praise Korean? According to several records, from the pre-Christ era, Korean was known as ‘Korean does not compete because they like declining’ or ‘There is no thief, so Korean live by opening a door, and people’s behavior is right.’ ‘Manner’ appeared academically by teaching a manner by establishing Taehak in the second year of Sosurim of Goguryeo. In late Koryo, the doctrine of Chu Hsi was delivered and [Garye] Chu Hsi wrote was introduced, so a base of manner was established, and nation’s basic customary system was made by King Sejong’s order in the 5th year of Seongjong. In addition, Kim Jang-saeng completed a study about manner suited to a state of Korea.

나와 당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관계의 명약

한국은 왜 여타의 문화권보다 예의가 있었으며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갖췄을까. 일정 부분은 타고난 한국인들의 기질에 관계한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몇몇의 가족군에서 규모가 커진 씨족사회로 그리고 부족사회, 이후 국가라는 형태로 집단 양상이 발전한 한국 사회사에서는 그 어떤 시점에도 개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는 더욱 커졌으며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질만으로는 감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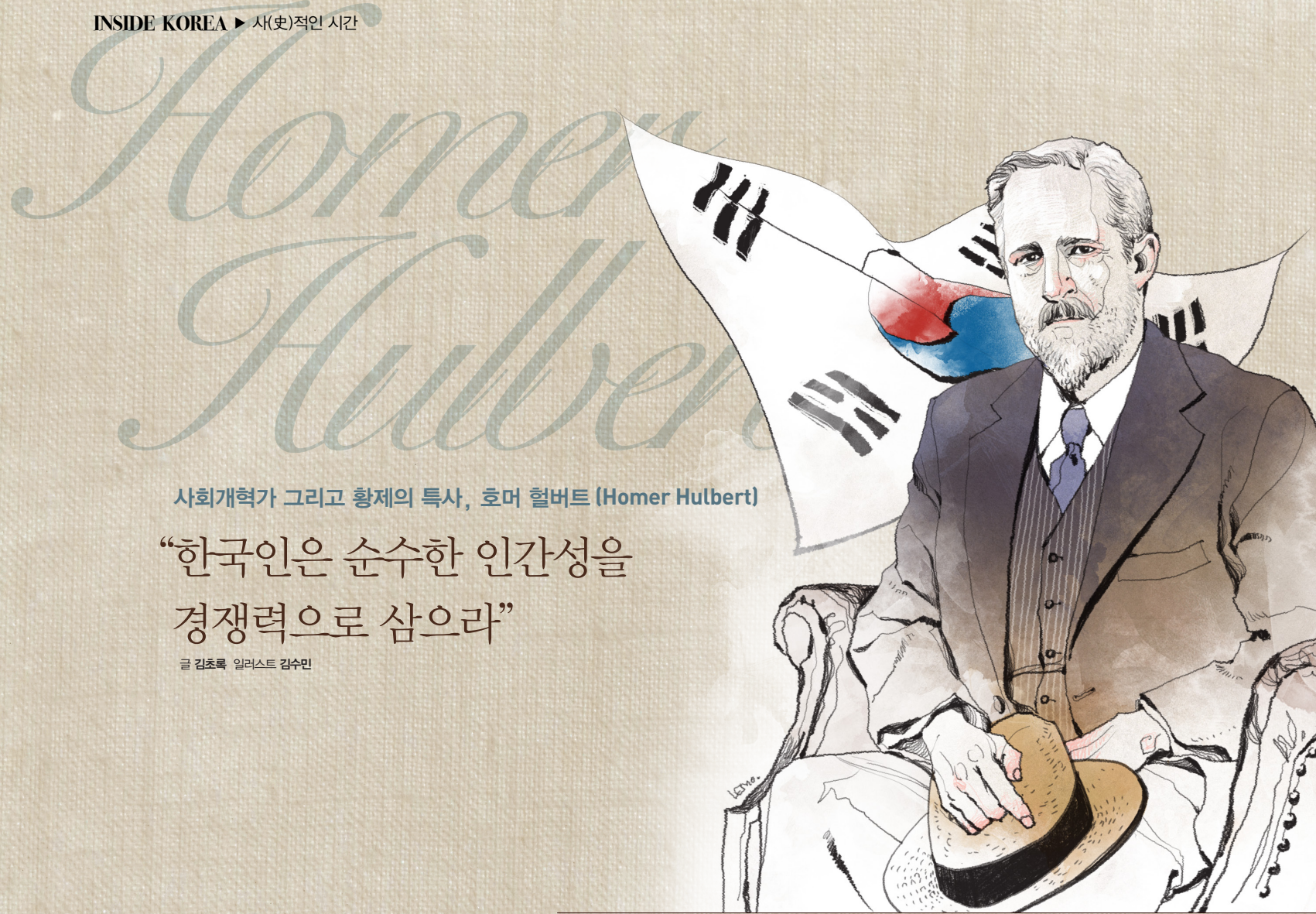


이 안 되는, 관계와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회로 대한민국은 성장해 왔다. 대가족이 한 집에 거주했으며 가족이 최소한의 단위로서 생활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에서 한국인들은 같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로서 그리고 소통의 역할로 '예의'를 생활을 아우르는 기본 질서로 택하였다. 즉 지금의 예의는 한국인들의 타고난 기질과 세대를 이어져 학습된 노력이 더해진 결과물이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으로 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한국인들의 가치관이자 한 나라를 구성하는 문화 그 자체로 진화되어 문화 유전자로서 이어져 오게 된 것이며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진입하고 한국은 집단 구성과 생활양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역사나 사회의 진화에 발맞춰 다양한 가치들의 변질 행렬이 진행되었고 오랜 시간 그 명맥을 이어온 '예의' 또한 이 행렬에 예외일수는 없었다. 생각되는 중요성이 조금은 퇴색되었고 행하는 방식 또한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은 예의에 기초하고 있다. 모든 것이 옛날과 같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에 흐르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특성을 자처한다. 그것은 예의를 차리는 양식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인 예의의 본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여러 가치관들과 융합하여 폐단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다른 변모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인들의 기질과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문화로서 '예의'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한 뼘 더 성장시키고 있다.

The Medicine of Relation, for not you and me but us

Why is Korean more courteous than other cultural areas, and is Korean polite? Some is related to Korean natural disposition,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ir lifestyle. In Korean social history that group aspect was developed from several families into bigger-sized clan society, tribal society, and then nation, individualization was not realized during any of the periods. As time went by, a community was getting bigger, and Korea has grown into a community society consisting of relation and relation that only Korean disposition cannot bear. Large family lived in one house, and a life was proceeded as a family is the minimum unit. In such lifestyle, Korean selected 'Manner' as a basic order embracing every life for the minimum consideration to live together and a role of communication. That is, the present manner is an output that Korean natural disposition was added to an effort learned as time goes by. This evolved into Korean values to live well and together based on respect to others, and a culture itself forming one country, so was continued as Korean cultural gene, and this organizes one set making the present Korea. In the 20th century, Korea had many changes of group constitution and lifestyle. Change of several values was proceeded according to evolution of a society, and 'Manner' keeping alive for a long time was also no exception. Some of Importance were faded, and a method also became different from a previous method. However, Korea is still based on manner. Everything cannot be like old times, but manner still flows in a foundation of Korea, and is Korean characteristic. This is because Korean does not lose essence of manner, a mind respecting for human being, regardless of a method of manner, and manner removes an negative effect by mixing with several values penetrating into Korea in the 21st century and can change positively. As effort to live well and culture with Korean disposition, 'Manner' makes Korea grow more today.



사회개혁가 그리고 황제의 특사, 호머 헐버트 (Homer Hulbert)

“한국인은 순수한 인간성을 경쟁력으로 삼으라”

글 김초록 일러스트 김수민

일제에 의해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고 다섯 번째로 돌아오는 1949년의 광복절. 당시 국가 원수였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 땅을 밟은 이가 있다. 당시 한 저널리스트는 이 노쇠한 남자의 장기간의 한국행에 관한 염려스러운 질문을 던졌고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 구한말 대한제국독립을 위해 최전방에서 분투했으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의 건국훈장독립장을 수여받았고 지금은 역사책 속 한 페이지에서 영면하고 있는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박사이다. 23살의 나이에 육영공원의 영어선생님으로 파견되어 조선으로 온 청년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민중시민을 대상으로 계몽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그는 세계 지리, 천체, 풍습 등을 망라한 총서를 한글로 집필하였다. 이는 한글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과서이며 '선비와 백성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을 담아 '사민필지'로 명해졌다. 1905년 대한민국 자주권 박탈의 시발점이 된 을사늑약(乙巳條約)이 강제 체결되자 고종황제는 조약의 부당함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헐버트에게 밀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된 그는 향후의 위험을 모르지 않았지만 여타의 생각 없이 밀지를 손에 받아 들고 외국으로 향했다. 실제로 끝이 난 임무, 그러나 그는 1907년 헤이그 특사로 다시 한번 대외에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자 했으나 결과는 무참했다. 그리고 일제의 박해로 더 이상 한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이후 대한민국 광복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독립 이후에도 일제의 만행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알리며 생의 나날을 쌓아갔다.

1949년 86세 고령의 나이로 40여 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헐버트 박사.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의 염원대로 바로 이 곳,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잠든다. 장례는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졌으며 그의 묘비는 청년 헐버트가 자주 찾아 사색의 시간을 가졌던 한강을 향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은애하다'

A warm word delivered to a loved one
'Eunaehada (love)'

한류 드라마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사극' 인데요, 옛 시대의 고담한 풍경과 아름다운 한복들은 사극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거리입니다. 그리고 사극의 또 다른 특징, 바로 배경이 되는 시대가 옛날이기 때문에 예스러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간혹 드라마를 시청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시간, 한류 드라마의 또 다른 주역 '사극' 속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스러운 표현과 그 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글 김초록 사진 MBC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사극 '밤을 걷는 선비', 김성열(이준기 역)과 이명희(김소은 역)는 혼례를 약속한 사이이다. 혼례를 며칠 앞 둔 저녁, 성열은 명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몰래 명희의 방에 잠입한다. 깜짝 놀란 명희에게 성열은 미리 준비해둔 꽃을 전달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가 꽃을 전달하며 “은애한다”라며 소리치는 남자.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때의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는 어느 정도 눈치 채실 수 있겠지요. 판타지나 로맨스 등 퓨전 사극이 활발하게 제작되는 요즘, 이들 드라마 속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인 ‘은애한다’는 현대어로 ‘사랑한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은애하다’는 말은 불교용어로 ‘아버지와 자식, 또는 부부의 은정(恩情)에 집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뜻에 의하면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은애(恩愛)’라는 단어가 ‘은혜와 사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나 부부간의 애정’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전혀 맥락과 맞지 않는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애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스러운 표현은 ‘연모하다’, ‘사모하다’가 있는데요, ‘연모하다’는 ‘이성을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하다’, ‘사모하다’는 ‘애틀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은애합니다, 연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참 뜻을 깊숙이 파헤쳐보면 약간씩은 의미가 다르지만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심을 표하고자 하는 그 애틀함이 존재함은 같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위에 언급된 표현들로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극 속 주인공처럼 고백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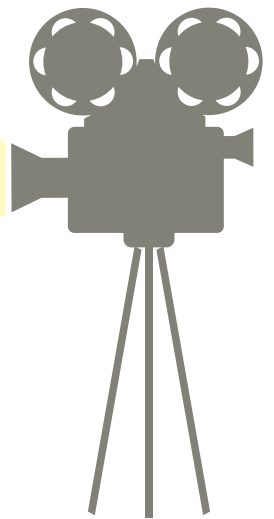
“

은애한다, 명희야

Eunaehanda, Myeonghui (Myeonghui, I love you)

”

A man shouting “Eunaehanda” while giving flowers to the woman he loves. If looking at the situation, you may somewhat notice what this expression is trying to say. These days when fusion historical dramas such as fantasy or romance are actively produced, ‘Eunaehanda’, the expression appearing the most frequently in these dramas, is used in the same meaning as ‘love’ in a modern language. According to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the word ‘Eunaehada’ is a Buddhist term and has the meaning ‘cling to benevolent affection of parents and children or couples’. Therefore, according to the meaning, it is not suitable for use as an expression to confess one’s love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not the expression that does not fit the context at all when you confess your love to the other party because the word ‘Eunae (love, affection)’ means ‘a word referring to both grace and love’ and ‘affe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r marital affection’. Old expressions containing a meaning similar to ‘Eunaehada’ include ‘long for’ and ‘have an affection’. ‘Long for’ contains the meaning ‘to miss the opposite sex and miss desperately’ and ‘long for’ contains the meaning ‘to think and miss ardent’. “I am grateful to you, long for you and have an affection for you.” Although the meaning varies slightly, if deeply researching the true meaning, the ardency trying to express one’s sincerity for the other party may be the same. Which word you use is not important. Giving significance in expressing your heart to the other party, why don’t you confess your love to a person you love today with expressions mentioned above like the main character in a historical drama does?



인간관계의 시작, 소통의 기본 ‘인사’의 발견

Beginning of human relations, Discovery of basics of communication ‘greeting’

‘인사’란 사전적 정의로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함’으로 풀이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 순간에 처음으로 나누는 행동인 인사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중요하지만,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특
히나 남다른데요. 알아놓으면 유용할 한국의 다양한 인사법과 많은 외국인들의 의문을 자아내는 특이한 인사말 등 ‘한국식
인사’의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초록

인사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한국의 다양한 인사법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기준으로 말과 행동을 달리 하여 예의를 갖춥니다. ‘인사’에서도 상대방에
따른 다양한 인사법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한국의 다양한 인사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개와 상체를 함께 숙이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또한 ‘정중한 인사’, ‘보통의 인사’, ‘가벼운 인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중한 인사는 상체를 45도 가량 앞으로 기울이며 함께 고개를 숙이는 방식으로 의전과
같은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사입니다. 보통의 인사는 상체를 30도 가량 앞으로 기울이며 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적합한 인사입니다. 가벼운 인사는 상체를
15도 가량 숙이면서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하는 인사인데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적합한
인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인사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인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악수’가 있는데요,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악수를 나눌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니 이를 주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Korea’s various greetings varying depending on the target you greet

Also in ‘greeting’, there are a variety of greetings depending on the other party. First, the most basic one
of various greetings in Korea is to convey greetings “How are you” with the head and upper body bowing.
This way can be also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courteous greeting’, ‘normal greeting’, ‘slight greeting’
and a courteous greeting is a way of lowering the head while leading the upper body forward about 45
degrees and is a greeting appropriate for an occasion emphasizing the formality such as protocol. A
normal greeting is to lean the upper body forward about 30 degrees and generally, young people greet
their elders in this way and it is a greeting appropriate for a business relationship. A slight greeting is a
greeting contacting the eyes with those of the other party while leaning the upper body forward about 15
degrees and can be said to be a greeting way appropriate for young people these days and can be also
used when encountering the same person several times. In addition, there are a variety of greetings but
typically, for example, there is ‘handshake’ that can be said to be a internationally accepted greeting way
and people may shake hands with each other regardless of age but you should note that it is rude for a
young person to offer the hand first to the elder in Korea.

한국인들은 왜 마주치면 “밥 먹었어?”라고 말할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표현’이라는 주제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외국인이 꼽은 1위는 다름
아닌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밥 먹었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거나 또는 어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난 상대방에게 한국인들은 왜 다짜고짜 인사말로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일까요.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밥
먹었어?”라고 묻는 인사는 고로 상대방의 안녕과 안부를 묻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인사말인
“How are you?”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식사를 했는지 묻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내는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Why Koreans ask “Did you have a meal” when meeting?

In a survey conducted on the topic ‘Koreans’ daily expression the mos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ost
foreigners selected the expression “Did you have a meal?” that can be said to be a word spoken the most
to the other party by people in the Korean society. Although they met after a long time or met yesterday,
why Koreans abruptly ask whether the other party had a meal as a greeting.

Even just a few decades ago, Koreans skipped their meals frequently. To them, a greeting “Did you have a
meal?” may be the same meaning as saying hello. It will be easy to understand if thinking it is the same
concept as “How are you?”, a greeting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If someone asks you whether you
had a meal, just think that it is the person’s sign of intimacy.

특별한 날의 인사말

한국에는 ‘설날’과 ‘추석’이라는 두 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요. 이때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사말,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석에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설날에 하는 인사말에는 앞으로의 한해
동안 무탈하고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리는 가을 명절
추석의 인사말에는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며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잘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인사를 해 온다면 상대방에게 같은 말로 인사를 돌려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먼저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넨다면 좋은 소통의 시작, 따뜻한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Greetings on special days

In Korea, there are two important holidays,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Greetings on those holidays, you may have heard once, are “All the best for the New Year.” on
Lunar New Year’s Day and “Be abundant on Chuseok.” on Chuseok. A greeting of Lunar New Year’s
Day, the beginning of a new year contains the wish hoping that only trouble-free and peaceful things will
happen during the coming year. And a greeting of a fall holiday Chuseok when many grains and fruits are
produced contains the wish hoping to enjoy the riches of autumn and spend the rest of the year well. If
someone greets in this way, it is polite to return the greeting with the same words to other party. And if
you first greet the other party like this, it may be the beginning of perfectly good communication.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 우편으로 체류민원 접수하세요!

“Application via Mail” Service for Foreign Residents in the Island Area

일러스트 강주연 자료제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종 출입국심사 서비스와 외국인정책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共ZONE> 편집실(see@theseven.co.kr)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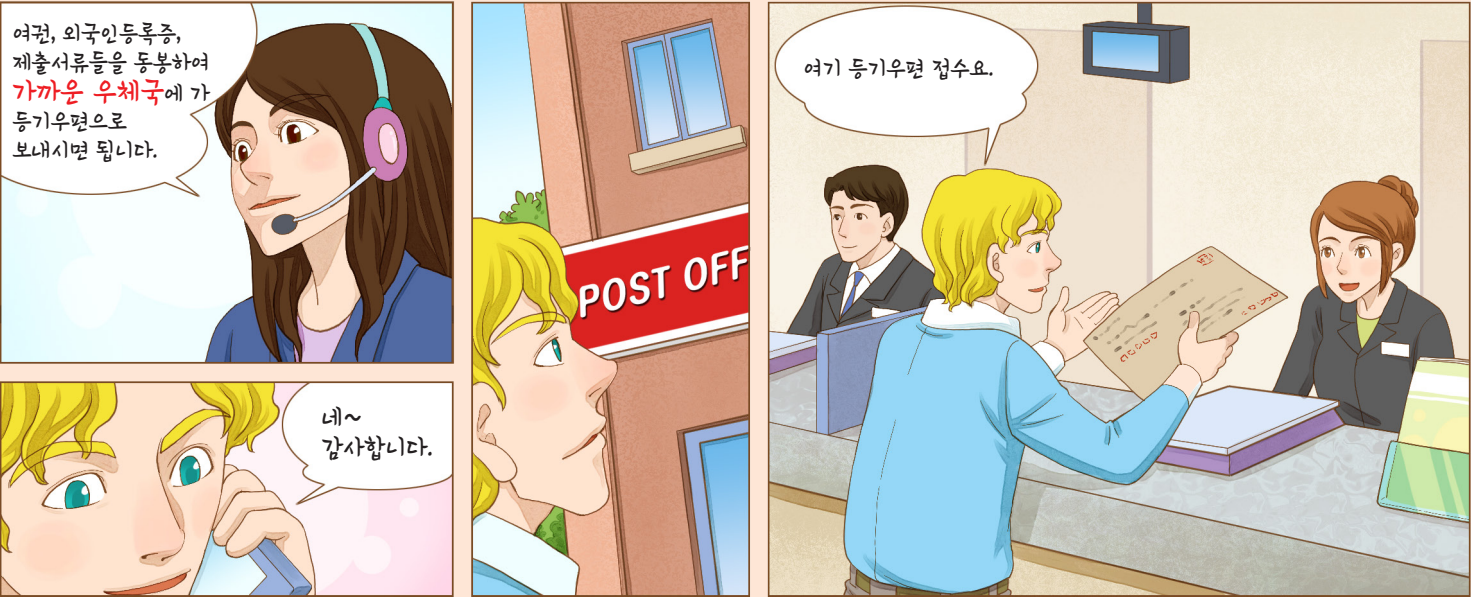


Q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어 민원을 접수하려면 타 지역까지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법무부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편민원 접수제이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체류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하고 그 결과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은 외국인등록업무를 제외한 모든 체류업무입니다. 우편민원 접수제도 이용 방법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및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민원 처리결과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여 다시 민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이 같은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이용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체류외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각종 체류민원제도를 고객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Q I would like to file applications for foreign residents, but unfortunately, I cannot find any immigration office in my neighborhood. For that reason, I have no option but to travel a long distance to file applications. Is there any other way to apply without visiting a faraway immigration office?

A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introduced “Application via Mail” system on August 1, 2015 in an effort to ease inconvenience caused to foreign residents living in the island area when they visit a distant immigration office to apply. The Application via Mail system allows foreign residents in the island area to apply by mail at a nearby post office and get the result by mail as well. Any registered foreigner with an Alien Registration Card or Domestic Residence Card living in the island area can use the system for every immigration service except for alien registration. To explain how to use the service, you can send your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ard, fees and documents required by each status of stay via registered mail at the post office. After your application is processed, the result is indicated on your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and they are sent back to you via registered mail.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s that the new system would eliminate inconvenience arising from visiting the immigration office in person. The Ministry will continue to take proactive steps to make the current immigration services more user-friendly in order to provide greater convenience to foreign residents in Korea.



광복 70주년,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그 날. 그야말로 광복을 기념하여 매년 같은 날을 국가지정 기념일인 ‘광복절’로 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광복’, 이 땅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눈부신 빛을 되찾은지 2015년 8월 15일 올해로 70주년이 되었다. 다시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조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수많은 이름들과 그 숭고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법무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글 김조록 사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국,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다

8월 12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정부청사에서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수여식이 개최됐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공을 세운 순국선열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며 법무부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932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였다.

앞서 8월 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상(像)에 헌화를 하며 올해의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 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에 특별귀화를 하기 위해 입국한 올해의 국적 취득자인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한국을 찾은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순국선열의 공적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믿음의 법치’는 2015년 7월 제 64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현웅 장관의 행정 신념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국민이 믿고 따르는 법치를 완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법에 대한 믿음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키워드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행정 신념으로 조국 독립에 대한 믿음과 희생을 믿음의 법치로 화답하고자 하는 의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향후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특별귀화를 추진하고, 제2호 공익신탁인 「나라사랑 공익신탁」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한말, 일제강점기 등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들에 대한 국적 취득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순국선열의 공적에 보답하는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믿음의 법치’는 2015년 7월 제 64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현웅 장관의 행정 신념으로 ‘법을 지키면 이익이고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법에 대한 믿음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키워드이다.

꿈에 그리던 순간, 온전한 대한민국을 전하다

8월 1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여식은 제 7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명경홍모(命經鴻毛: 본인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김)’한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념함으로써 수여식에 그 의미의 중요성을 배가하였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 축사를 전하기 위해 단장에 올랐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모두 선열들이 독립에 대한 믿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덕분이며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특별귀화 대상을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한번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인들의 공을 되새겼으며 후손들에게라도 선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전할 것이라는 다짐을 공언하였다. 덧붙여 이날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 또한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뒤이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국적증서 수여식에 걸맞는 특별한 세레모니가 펼쳐졌다. 정부과천청사에 게양되어 있던 대형 태극기가 김 장관의 손에서 후손들 대표인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의 손자 이준 씨의 손으로 전달되었다. 조부의 발자취와 나란히 하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 씨는 유난히도 다정했던 할아버지를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넓은 자애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으며 언제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서양문화에 익숙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도 신발을 신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전혀 꾸짖지 않으시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14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의 공적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문객들로부터 조부께서 독립투사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펼치며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고 또한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한글 사랑이 극진하여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을 한글학회에 기증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저도 한글 공부에 매진하여 지금처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부진 한국어로 조부의 공적에 관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그는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너무나도 기쁘다는 말로 인터뷰를 끝맺었다. 수많은 시간과 세대를 뛰어넘어 품에 안겨진 태극기는 그들의 선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온전한 조국 대한민국 그 자체였기에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태극기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진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선인의 공은 결코 잊혀지는 법이 없다.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하는 일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공에 대한 모든 보답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헌신과 노력과 마음이기예.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이름을 전달해 줄 수 있어 그들 선인의 헌신 덕분에 온전한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조금은 마음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조국

국적증서 수여식이 끝나고 이틀이 지난 뒤인 8월 14일에는 이번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외국 국적과 이번엔 취득한 국적을 이중

국적 형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식을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하였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는 것으로 이를 따르면 본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한 이들은 유난히 들떠보였다. 본래의 절차대로 한 사람씩 접수대에 앉아 서약식을 진행하며 사

뜻 진지한 분위기 또한 연출되었다. 이 같은 서약식은 이번 국적증서 수여 행사의 마지막 단계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손들에게도 자신들의 선인에 대한 공적을 잊지 않고 한국 국적을 수여해 주는 것으로 보답의 마음을 전달하는 한국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행하는 마지막 절차였다. 더불어 자신들 또한 선인들의 발자취를 좇아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는 작은 약속을 동시에 한 셈이다.

이날 서약식에서 독립을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을 펼치다 광복을 3년 앞두고 숨을 거둔 김정천 장군의 손녀 엘레나 씨는 ‘할아버지의 소원은 자유로운 자신의 나라에

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항상 갈구하셨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할아버님과 같은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 국가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밝히며 한국인이 된 기쁨을 전했다. 또한 외증손녀 에벨리나 씨는 증조부인 김정천 장군이 자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며 자긍심 가득한 얼굴로 말을 전하며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한국인과는 생김새나 언어가 다르지만 제겐 한국은 항상 낯설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국적 수여식에서 애국가를 따라 부르며 한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증조부께서 꿈꾸신 역사적 조국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게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조국이 되었습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

간편하고 신속한 비즈니스 여행을 경험하세요

APEC 회원국 기업인은 해외 방문시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ABTC발급시스템 홈페이지(abtc.kita.net)를 방문하세요.



카드 혜택

- 회원국 방문 시 최대 90일간 비자 면제
- 전용 심사대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ABTC 유효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ABTC 발급 요건 완화(임직원 수와 관계없이 수출입 실적 10만 달러 이상, 1천 명 이상 기업의 최대 발급인원 수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5
공존이 꿈꾸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시프 무하마드 Asif Muhammad
제도적인 발전에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서로의 차이를 넘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共ZONE〉과 같은 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if social atmosphere where everyone can live well together beyond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other to allow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Korea will be perfectly mature. And to this end, I hope many books such as 〈共ZONE〉will be written.



유누스알리예바 하예트혼 Yunusahyeva khayothon

한국이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속 개인 사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에, 제가 꿈꾸는 성숙한 대한민국은 작은 차별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As a foreigner, I fully feel that Korea is constantly trying to embrace many foreigners and respect various cultures. However, there is still a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among individuals in society so mature Korea of which I am dreaming is Korea where even little discrimination does not exist.



트란티녹안 Tran Thi Ngoc Anh

공존이 존재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람들과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야합니다.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아말로 성숙한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To be Korea where there is co-existence, I think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s well as Korean people and Government should make a lot of effort. Foreigners should try to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I think mature Korea is a society where everyone is working together.



김연화

다양한 곳 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받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영두해 두고 타국이 낯선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친절을 베푼다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Receiving an impression of Korea in various places or unexpected places, I think about the country called Korea. Therefore, if public institutions and many Koreans are more kind to foreigners feeling strange to the foreign country with this in mind, Korea will be a better place to live.



곽유이

한국에 온지 십 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이민자로서 많은 혜택을 얻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노력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전을 더욱 몸소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충만하다면 그 자체로 성숙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I came to Korea. From the moment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got many benefits as an migrant and am always grateful for it. Over time, I feel more personally Korea's efforts to make many people live well on this land and the resulting development of the society. If warm eyes and consideration are full like now in the future, Korea will be a mature country by itself.



보티로바 사보하트 Botirova Sabokhot

한국의 많은 것이 서툰고 낯선 외국인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내 · 외국인을 넘어서 아우라져 사는 사람들 사이에 조금만 더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곳, 제가 꿈꾸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Hurting foreigners unfamiliar with and strange to many things occurs in a very small part. There will be no problem if people living in harmony beyond locals-foreigners are a little more considerate of one another and put themselves in the person's shoes. A place where everyone can laugh, this is mature Korea of which I am dreaming.



Please rotation!

다음 페이지부터 〈共ZONE〉의 또다른 색선 INSIDE KIS가 펼쳐집니다. 책의 방향을 돌려서, 출입국의 세 소식을 만나보세요.

共zone

2015 AUTUMN VOL.03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출입국 25시
전자비자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통계로 보는 출입국
꿈을 키우고 펼치는 외국인 유학생 · 전문인력

출입국 스타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수호자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인향 · 조의재 반장

표지모델 : 전자비자센터 박준태 센터장 · 김정우 계장(앞) · 이지혜 반장(뒤)



K.I.S.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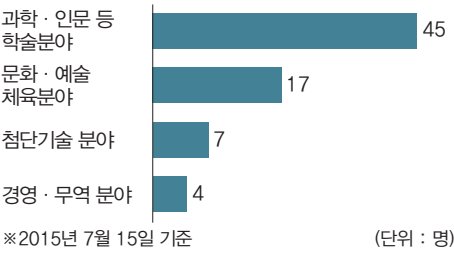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한-파라과이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개최



지난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한국-파라과이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이 개최됐다. 이날 회담을 위하여 크로나베티(Jorge M. Kronawetter Kuimyan) 파라과이 이민청장이 본부에 방문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필두로 출입국기획과장, 이민정보과장 등이 회담에 동반 참석했다. 이날 회담에서 파라과이 측은 지난 '14년 12월 체결된 「한-파라과이 출입국협력 MOU」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측 전문가 파견 및 출입국현대화 사업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출입국관리 부분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양국 간 출입국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회담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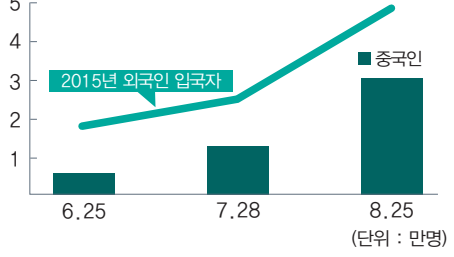
국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2일에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 이 같은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초대형 크루즈 입항 적극 지원



법무부는 지난 8월 27일 메르스로 인하여 여전히 크루즈 관광객 방문이 침체된 상황에서 5천여 명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Quantum of the Seas)호(이하 퀀텀호)가 국내 최초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퀀텀호는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로알 캐리비안' 소속 크루즈선으로 승객 정원 4,905여 명, 승무원 1,200여 명을 포용할 수 있는 16만 7천톤급의 초대형 호화 선박이다. '15년부터 상해에 근거를 두고 주로 중국과 일본 노선을 취항하여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입항한 전례가 없다. 퀀텀호는 당초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일본 항해가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방문 일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관광상륙허가를 긴급 요청하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관광효과를 기대하고 선사가 보증을 하고, 기항 항구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퀀텀호의 국내 최초 입항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이번 퀀텀호의 한국 방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6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입국자 동향, 메르스 상태 이전 상태로 회복



메르스 여파로 급감했던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8월 25일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입국자 수는 국내에 메르스 영향이 나타나기 전인 5월 평균 일일 3만 9천명이었으나 6월 5일부터 3만 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여 6월 25일 전에는 12,325명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만 명대에 머물다가 7월말부터 2만 명대를 회복하는 등 완만한 상승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3만 명대를 회복하고, 8월 25일에는 40,078명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외국인 입국자 수 회복은 메르스 사태의 안정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등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단체 관광객 106,866명(8월 25일 기준)이 혜택을 입고 입국하였다.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실시



지난 8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 정부 · 민간 합동기량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뿌리기업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기술인력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뿌리 산업은 그 중요성에 반해서 인력부족 및 경영상 애로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12년도부터 정부는 뿌리산업을 지원 중에 있다.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량검증이 통과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사회 전반의 비정상성을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권력 등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마당 <http://normal.go.kr>

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완료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나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도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사용 용도에 따라 주소지를 현재 주소에만 국한하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조국 독립에 대한 믿음, 믿음의 법치로 화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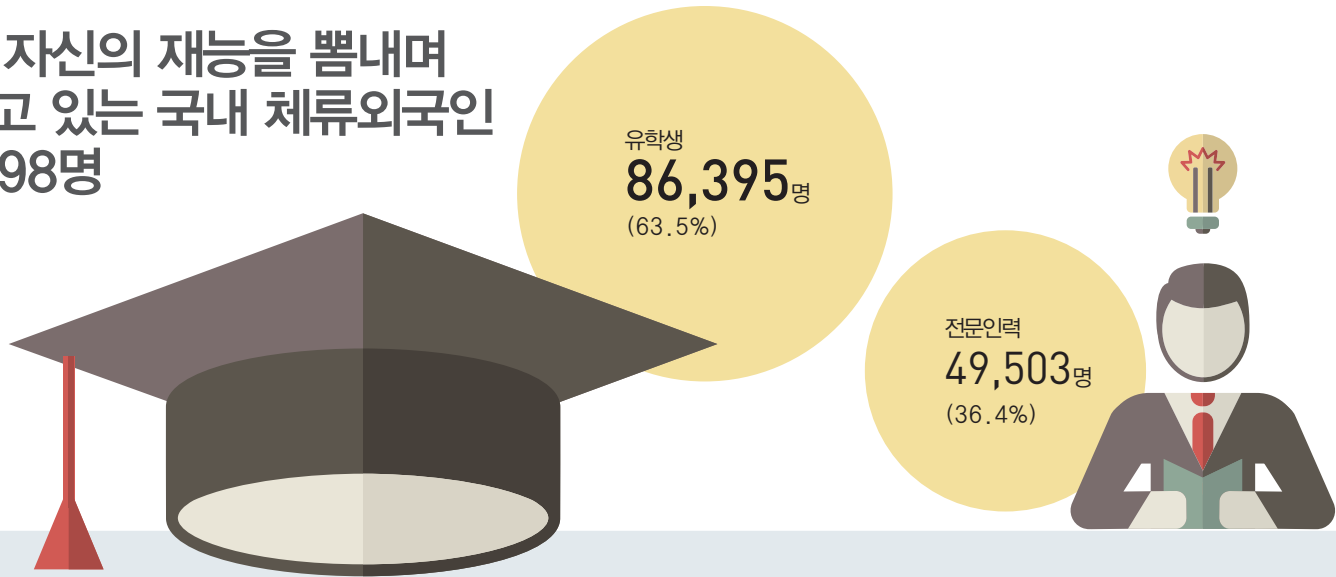
지난 8월 5일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조국의 소중함과 순국선열의 헌신적인 희생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순국선열들이 보여준 조국 독립에 대한 고귀한 믿음과 헌신적인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을 찾아준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순국선열의 공적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8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모두 선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덕분임을 강조하고 법무부는 향후에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특별귀화 대상을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꿈을 키우는 외국인 유학생 꿈을 펼치는 외국인 전문인력

출입국 행정을 맡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는 숫자로 기록된다.
그렇기에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통계를 활용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슈를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2014)

01
오늘도 자신의 재능을 뽐내며
활약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
135,8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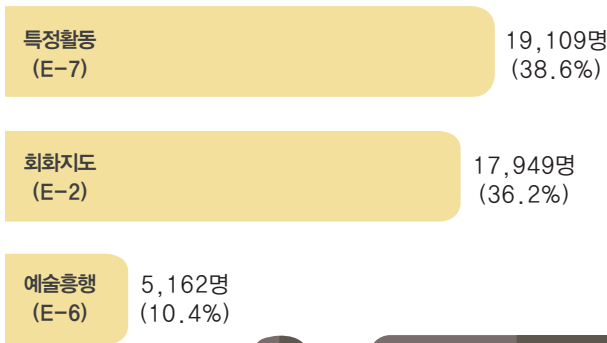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체류외국인 숫자는 총 1,797,618명입니다. 그 중에서 유학생과 전문인력은 135,898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중 약 7.5%에 해당합니다. 유학생은 단순 유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D-2자격 소지자와 한국어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D-4-1자격 소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능을 펼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 135,898명 중에서 유학생에 해당되는 숫자는 86,3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인력으로는 단기취업(C-4)자격과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자격 소지자가 해당됩니다. 전문인력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4년에 총 49,50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02 배우기 위해 또 가르치기 위해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탄다

2014년에 집계된 외국인 유학생 86,395명 중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행을 택한 외국인의 수는 25,138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약 29%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61,257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외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 입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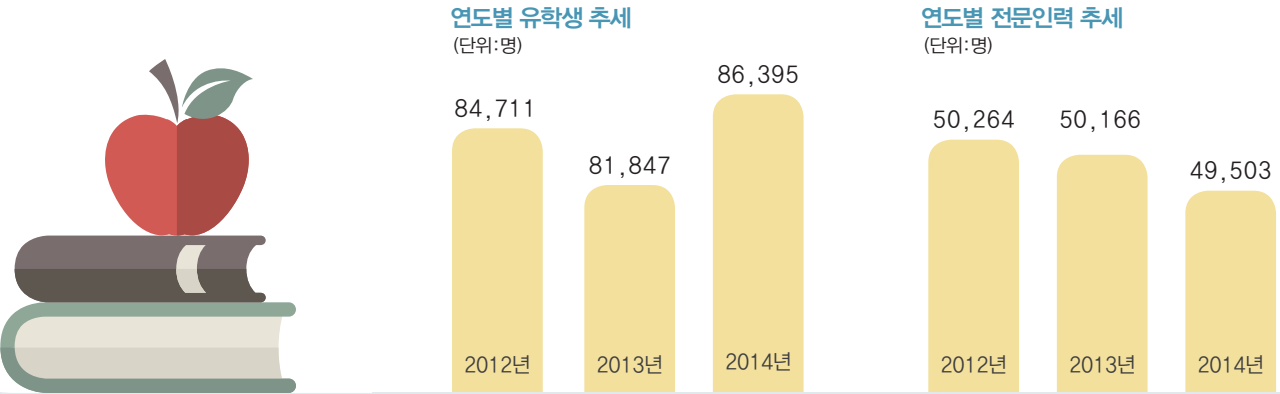
전문인력 외국인 중에서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한 외국인은
593명으로 약 1.1%에 해당하며 특정활동 자격 외국인이 19,109명(약
38.6%), 회화지도 자격 외국인 17,949명(약 36.2%), 예술홍행 자격
외국인 5,162명(약 10.4%), 연구 자격 외국인 3,195명(약 6.4%), 교수
자격 외국인 2,664명(약 5.3%), 전문직업 자격 외국인 645명(약 1.3%),
기술지도 자격 외국인 186명(약 0.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인력 자격별 순위



03 유학생&전문인력과 대한민국의 공존은 '순항 중'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히 그 숫자가 증가해왔습니다. 2011년 이후 '12년과 '13년 연달아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5.6% 증가하는 현황을 기록하며 다소 주춤했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라 2010년 이후 급속하게 그 숫자가 증가하여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글로벌 코리아’를 탄생시키다

전자비자센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국에서 출입국 관련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이곳이라 할 수 있겠다. 하루 평균 2000건 이상의 비자를 발급하고 몇 분 간격으로도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곳. 바로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전자비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더 많은 외국인들과 실 틈 없이 대화를 이어가고 또한 대한민국 출입국 서비스를 날마다 진보시키고 있는, 글로벌 대한민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의 현장을 방문했다.

글 김초록 사진 서찬우



AM 09:05

선진 출입국 서비스가 집약된 곳

〈共ZONE〉여름호 뉴스에서는 전자비자센터 개소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이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센터가 위치해 있는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빌딩 16층에 방문하였는데요, 그곳에 도착하자 전자비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한 지붕 아래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비자센터(이하 비자센터)는 2015년 4월에 개소된 선진 출입국 행정 시스템이 집약된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전자비자시스템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야심차게 탄생시킨 출입국 시스템입니다. 비자센터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비자발급 업무와 대한민국비자포털·하이코리아·유학생정보시스템과 같은 각종 포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자센터와 손을 마주잡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국내 체류외국인들에게 출입국 및 체류 그리고 국적 등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생시킨 조직으로 2005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상담실이 그 모체가 되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안내센터는 조직 개편을 통하여 2008년부터 안내센터 고유번호 ‘1345’와 함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개소 당시 영어, 중국어 등 7개 언어 그리고 상담사 56명으로 상담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체류외국인들과 이들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세에 발맞춰 행정 서비스를 발전시켜 20개 언어로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사를 대폭 증원시켜 지금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AM 11:15

가능성, 그 놀라운 이름 ‘전자비자센터’

먼저 최근에 개소된 비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비자센터는 객준태 센터장을 필두로 콜센터 및 포털사이트 ‘하이코리아’를 관리하는 이미라 실장과 안내센터 상담사 교육과 안내메뉴얼을 관리하는 김정우 계장, 전자비자 심사 및 유학생시스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혜 반장이 합심하여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적은 인원이지만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제 몫 이상 해내는 속이 알찬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센터를 이끌어가는 객준태 센터장의 비자센터에 대한 애정은 남다롭습니다. 새롭게 개소되어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을 책임지는 것에 부담이 있을 법도 하지만 객준태 센터장의 얼굴에서는 조직에 대한 자신감과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가득 엿보입니다. 무엇보다 센터가 해내야 할 역할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PM 13:25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

국내 방문과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비자발급 그리고 각종 체류허가업무 등 외국인 관련 출입국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민원 환경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 비자센터라며 센터의 출범 목적과 존재 이유에 확신을 드러내는 객준태 센터장은 또한 IT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출입국 민원을 방문처리방식에서 온라인처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재외공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센터가 가야할 방향성 또한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비자센터의 중요성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출입국 민원을 처리하는 출입국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재외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는 등 모두에게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출입국 시스템이 아닙니다. 출입국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이 행정 서비스로 거듭나기까지 직원들의 수많은 고민의 흔적들과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IT기술이 만나 놀라운 결과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기대가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이제는 그 가능성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비자센터가 앞으로 보여줄 선진 출입국 행정이 기대가 됩니다.



PM 14:30

‘글로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써내려가다

안내센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공간, 수많은 책상 앞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앉아 헤드폰으로 끊임없이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외국어상담사 62명, 한국어상담사 21명으로 총 83명의 상담사와 이외 매니저 및 스텝, 팀장으로 이루어진 안내센터는 개소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그 규모가 커졌으며 업무 실적은 지난 7년간 약 850만 건의 상담을 기록하고 연 평균 120만 건의 상담에 이를 정도로 180만 체류외국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안내센터로 유입된 콜은 242만 건으로 다국어 전용 안내센터로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실트 없이 밀려드는 상담전화와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간에 더불어 야간에도 오후 10시까지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3개 언어로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는 전국 단일번호 1345를 통해 산하기관 전화민원 응대를 안내센터로 집중시키며 이곳은 그야말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화통역과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중추적 조직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안내센터를 이용한 상담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안내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미라 실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안내센터는 매일 상담품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 1회 외부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용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용고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만족도는 매년 놀라운 수치로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인들은 안내센터의 신속함과 답변의 충실성에 매우 만족함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면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정확성과 여기에 담긴 상담사의 성의는 안내센터가 가지고 있는 주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M 16:40

진심이 만들어내는 행정 서비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닐 텐데요, 물론 지금과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유선상으로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 간혹 대화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출입국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이기 에 다양한 국가 출신의 상담사와 많은 민원인 사이에서 언어 전달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담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우 계장이 강조하는 것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반복 교육입니다. 새로운 상담사가 일을 시작할 때 진행되는 초기 교육과 더불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강사 외에도 센터의 팀장들이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전화에 상담사들은 지칠 법도 하지만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상담사들에게는 매번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문의를 하는 민원인은 처음이기에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문의한다는 마음으로 온화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맞춤형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보티로바 사보하트 상담사는 국내에 들어온지 2년이 채 안된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들의 안부를 챙깁니다. 이는 새로 입국해 언어소통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후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상담사들을 멘토로 지정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서비스인데요, 그들의 현재 상황을 살피며 혹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친구처럼 또는 엄마처럼 그들의 삶을 살뜰히 챙깁니다. 간혹 냉정하게 돌아오는 민원



인들의 답변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상담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의 성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또한 같은 외국인으로서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또 다시 헤드폰을 바로 잡고 민원인과의 대화에 열중합니다. 민원인이 상담 후 전화를 끊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전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다는 상담사들의 말에서 그리고 안내센터가 단순히 출입국의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출입국을 대변하여 민원인과의 최접점에서 소통의 창구이자 조직의 생명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유명희 안내센터 매니저의 자긍심에서 더 큰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대한민국을 꿈꿔 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함께합니다

아시프 무하마드(Asif Muhmmad, 파키스탄)

기술연수 비자로 2004년 한국에 방문하여 올해로 한국생활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아내와 결혼도 하고 2년 전부터 여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던 때만 해도 파키스탄 언어를 사용하는 민원인들은 그 수가 적었지만 점점 늘어나며 제가 본국의 언어로 민원을 해결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저 또한 한국생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까마득 했었는데 이제는 타국이 생소한 외국인들이 안내센터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같은 외국인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저도 여기에 자극받아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 맛집과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국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또한 출입국과 제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국경을 지키는 수호자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전인향 · 조의재 반장

글 김초록 사진 서찬우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출입국 심사가 그 어떤 출입국 관련 업무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남다른 중요성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대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곧 국경이며 또한 떠나는 이들에게는 한국의 마지막 장면이 된다. 이 장면의 주인공이라 하면 다름 아닌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다. 그 중 최고의 심사관들만 받을 수 있다는 ‘최우수심사관’ 타이틀을 거머쥔 전인향 반장과 조의재 반장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의 나라 대한민국은 남과 북의 분단에 의한 북쪽 영토의 출입이 불허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출입하는 방법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이용하는 방법뿐이다. 그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늘길 그리고 그 길의 종착지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이라 불리며 하루에도 약 십만 명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떠나보낸다. 언제나 인산인해의 모습으로 북적이는 공항 중심부에 도달하기까지 공항 이용객이 거쳐야 할 필수 관문은 바로 대한민국 국경을 넘기 위한 출입국심사이다. 그리고 여기 한 나라의 출입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서도 감히 이 분야의 최고라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선정하는 최우수심사관이 된 걸로도 모자라 이 같은 명예를 3회 연속 수여받은 전인향 반장과 조의재 반장을 말이다.

심사관의 덕목 ‘초심’과 ‘외유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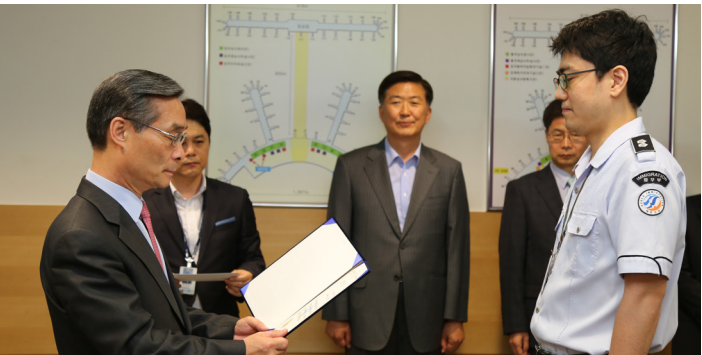
“처음 최우수심사관 표창장을 수여받을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상을 받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상을 받는 걸 목격한 적은 있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영광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최우수심사관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회를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 전인향 반장이 들려준 말이다. 조의재 반장은 친절옴 직원으로 한 차례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최고의 심사관들에게 주는 상을 자신이 연달아 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처음 창원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1년 여 동안의 근무생활을 보내고 이후 인천공항에서 근무한지 2년 정도 되어 간다는 조의재 반장은 출입국 직원으로서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셈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최고의 심사관이 되었을까 하는 조그마한 의문을 살며시 내비치자 그가 들려준 대답은 의문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현답이었다.

“출입국 심사대는 늘 복잡하고 시간과 사람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죠.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업무속도를 높이는 일이었죠. 신속하게 심사를 처리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결책에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숨겨진 이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출입국 심사는 단순히 이용객들의 여권을 확인하는 일만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이용객의 눈을 마주치며 여권을 심사하고 돌려주는 그 순간까지, 속으로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심사관의 첫 번째 임무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한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임을 명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처리에 속도감을 높여 출입국 심사대의 혼잡도를 줄이고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절대로 잃지 않는 심사의 기본 원칙과 그 목적, 이것이 바로 조의재 반장이 베테랑이라 불려도 손색 없는 이유일 것이다.



엄격한 자기관리가 만들어 낸 결과물

경력으로만 보아도 단연 베테랑으로 꼽히는 전인향 반장은 인천공항만 해도 6년 동안의 근무 경력이 쌓여있다.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이기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을 법도 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적성에 맞다며 긍정의 기운이 가득한 답을 들려줬다.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레인다고 들뜬 표정으로 말을 덧붙인 그녀는 알고 보면 카리스마 있기로 소문난 심사관이다.

“저희의 임무는 국경관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의 손을 거쳐야 하죠. 그렇기에 남들은 겪어보지 못하는 특이한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조건 입국 허가를 해달라며 난동을 피우거나 항의를 하는 이용객에게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공항이라는 업무 환경 탓에 밤낮 교대 근무로 지칠 법도 하지만 한 치의 빈틈도 보일 수 없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관련 법조문이나 지침을 공부한다는 그녀. 그리고 소홀히 하지 않는 자기관리 덕에 몇 차례 범죄 회피를 목적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는 범죄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국가 안녕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이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 한다는 그녀에게서 그리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외국어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조의재 반장에게서 심사관만이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의 일면이 엿보인다. 그렇기에, 세계인들과 대한민국의 경계선에서 공존하며 그 공존을 평화롭게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밀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또한 잘 버티어 달라고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우수인재’ 태극마크를 달다

World-wide ‘Outstanding Individuals’
represent Korea

인재 경쟁의 시대, 전 지구적 글로벌화 현상으로 국가 간 경계는 허물어지고 인재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기꺼이 찾아 나선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소비인구 부족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에 분포된 우수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는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법무부는 2010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우수인재가 간이한 절차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제도를 운영하고 또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 시행된 이후에 세계 우수한 외국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까지 학술·과학 분야 45명, 문화·체육 분야 17명, 경영·무역 분야 4명, 첨단기술 분야 7명으로 총 73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인재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귀화나 국적회복 등의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우수인재 등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할 수 없고 해외에서는 자의대로 국적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러한 서약을 하면 원래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서약을 한 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된다. 위반 행위에는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한 경우,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가 해당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외국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원 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치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What is the vow his/her intention not to exercise his/her foreign nation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principle, a foreigner who has attaine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Naturalization or Reinstatement of Nationality process shall renounce the original nationality (foreign nationality) within one year after the attainment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f the person falls under any of the related subparagraphs, he/she doesn’t have to renounce the nationality by vowing his/her intention not to exercise his/her foreign nationality in the ROK. The ‘vowing his/her intention not to exercise his/her foreign nationality’ herein means the vow not to exercise his/her foreign nationality in the

ROK. Accordingly, he/she can select the nationality and exercise it in foreign countries of his/her own volition.

After acquiring the nationality and taking such vow, he/she can retain his/her multiple nationalities without renouncing his/her original nationality.

Notwithstanding, a person with multiple nationalities who has vowed his/her intention not to exercise his/her foreign nationality in the ROK conducts any act evidently violating such intention, the Minister of Justice may order him/her to choose one nationality.

Such offenses include (1)departing from or entering Korea repeatedly with a foreign passport (2)completing foreigner registration or reporting on place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a foreign nationality (3)exercising or intending to exercise a right of a foreigner over the State or any local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public organization or educational institution by making use of a foreign passport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 person who is ordered to choose one nationality shall select one nationality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the order is received and if he/she fails to carry out the order, he/she lose the nationality of the ROK.

The vow plays a role as a useful institutional framework in active attraction of the global talents to Korea by not asking the requirements for stay and the duties to renounce a foreign nationality which are regarded as negative prerequisite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nationality of ROK.

*국적심의위원회

우수인재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조직

Nationality Deliberation Committee

This term refers to the organization having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s head and civilian experts in diverse fields and public servants of relevant bodies as members which was established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for the great talents



우수인재 심의대상
Persons subject to review for global talents

다음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A person recommended by following persons [pursua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6[2]1]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cluding the head of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er of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다음 사람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A person who is submit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deliberation upon the recommendations of following persons [pursua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6[2]2]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재외공관의 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ferring to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a Metropolitan City, a Do and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president of a four-year course university or college, the head of a diplomatic mission abroad -the chairman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he chairman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the chairman of the Arts Counsel Korea, the chairman of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the chairman of the Korean Film Counsel, the president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the head of a research institution prescrib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ions Article8[1]
그 밖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In addition, a person submit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whose authority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with the award he/she received, research achievements or career in the fields of science, economy, culture and sport	

우수인재 유치기반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는 해외에 있는 우수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 이 미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취업 및 창업 자격 취득요건 완화, 부모동반 허용 등 체류편의를 확대하여 우수인재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재학중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로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다. 졸업을 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내 취업을 위해 취업자격(E-1~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며 교수(E-1)~특정활동(E-7) 각각의 취업자격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 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여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비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창업희망자·구직자격(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를 희망한다면 국내대학에

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연령·학력·소득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비자발급을 위해 재외공관 방문없이 '대한민국 비자포탈'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으로 비자신청을 간소화 하여 국내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Retaining International Students to Secure Global Talent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taken various steps not only to attract global talent from outside of Korea, but also to retain highly-talented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at a Korean university. The Ministry has sought to provide greater convenience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by easing employment/start-up requirements and allowing parents invitation, which the Ministry expects to be a lever to secure more global talent. If you are an undergraduate student with a D-2 visa

or a language trainee with a D-4-1 or D-4-7 visa, and confirmed by your school's person-in-charge of international students, you can take up a part-time job after a permit is granted by the jurisdictional immigration (branch) office.

If you are a graduate (or graduating) student of a Korean university and want to work in Korea, you must change your status to E-1 through E-7. You become eligible to apply for the change only after satisfying qualifications required by each status. If you want to find a job in Korea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for start-up immigration, preparation/applic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atent rights, etc.) or establishment of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 자격요건
Eligibility for Change of Status (for International Students)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For a part-time job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은 자 -Student (D-2) or Language Trainee (D-4-1 or D-4-7) visa holders confirmed by the school's person-in-char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permitted by the jurisdictional immigration office *limited to activities that students usually take up as a part-time job (including low-skilled labor work)
취업자격 (E-1~E-7) 으로 변경 Change of status to (E-1 through E-7)	-구직(D-10)자격 또는 유학(D-2)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한 자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Job Seeker (D-10) or Student (D-2) visa holders staying in Korea legally -who intend to work in an area falling under Professor (E-1), Foreign Language Instructor (E-2), Researcher (E-3), Technical Instructor/Technician (E-4), Professional (E-5), Artist/Athlete (E-6) or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and who satisfy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status, and -who have signed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head/president of an organization/institution
구직(D-10)자격으로 변경 Change of status to Job Seeker (D-10)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예정자 포함)한 유학생 -국내·외 학사 이상의 학위(학위 수여예정자 포함)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earned an associate degree from a Korean community college (including graduating students), or -either who have earn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 university (including graduating students) or who have completed (or will be completing) a research course of an academic research center, or -who have earn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foreign university (including graduating students) and who intend to establish a start-up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he equivalent technology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 (F-2-7)으로 변경 Change of status to Resident (F-2-7) based on a points system	-체류자격 유학(D-2), 구직(D-10)을 소지한 자로 국내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정해진 점수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취득 점수의 합계가 기준 점수 이상(총 120점 중 기준 점수 80점 이상) *점수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D-2 or D-10 visa holders who have earned a master's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 university (including graduating students) and have been confirmed as a new employee of a Korean company, and -who score at least a total of 80 points from the items on the official points table (full points: 120) *Please visit the web-site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ww.immigration.go.kr) to find the points tabl



해외 우수인재 유치 사업, 외국인 친화적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글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정치학 박사)

1960년대 이래 대한민국은 외국의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그러나 국내에 온 외국인 우수인재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로 떠났고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해외 우수인재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외 우수인력 유치사업과 병행한 외국인 친화적 사회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Since the 1960s,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develop various projects on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ers. However, the majority of these foreigners leave once their contract expires, leaving only a handful to settle in the countr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truct a foreigner-friendly socio-culture infrastructure in parallel to the projects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ers which would lead to an increase of their settlement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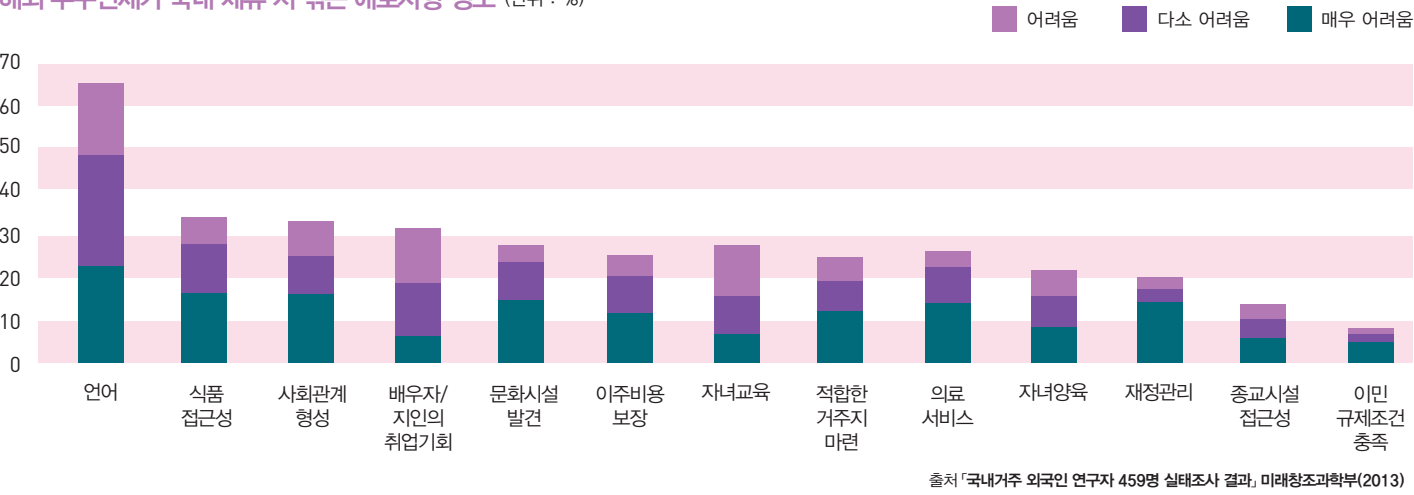
해외 우수인재 유치사업의 한계

한국 정부는 1968년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유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이언스카드(Science Card), 브레인풀(Brain Pool),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 BK21),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World Class University: WCU), 세계 수준 연구센터 사업(World Class Institute: WCI), 스터디코리아 2020(Study Korea 2020),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등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수의 해외 우수인재를 한국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우수인재가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인과 혼인을 했다거나 기타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외국인 우수인재는 계약기간만 채우고 혹은 계약기간도 못 채우고 출국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한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우수인재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도 출신국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이중국적 보유도 허가했다. 하지만 일부 운동선수를 제외하고는 우수인재가 한국국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3년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주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언어, 음식, 사회적 교류 등 사회·문화적 문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우수인재 유치 사업에서 외국에서 온 우수인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배려는 많지 않았다. 정부의 해외 우수인재 정책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인적 자산을 획득한다는 경제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체류 시 겪는 애로사항 정도 (단위 : %)



적 사고가 중심이 되었고, 해외 우수 인력 주요 유인책은 높은 임금이나 성과 산출에 유리한 업무 환경 제고였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집과 직장만 오가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 외 시간에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해외 우수인재 유치 사업에서 외국인이 퇴근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때 한국사회에서 직면하기 쉬운 문화적 차이와 충격에 대비하거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배려는 드물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위한 한국사회 적응 지원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가 외국에서 온 이민자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해외 인재 유치 사업에서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제3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방안’이라는 새로운 해외 우수인재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했는데, ‘세계 우수인재가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 방안에 우수인재가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활용을 위한 장기 추진전략으로 ‘정주 여건 및 사회문화 시스템 단계적 개선’을 명시하고, 두 번째 추진과제로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문화 인프라 조성’을 포함했다. 이어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2015년 새로 도입한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에서 초청한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전문코디네이터 배정을 내용으로 포함하여 국내에서 해외 인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과거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인력운용 측면에서만 접근했던 데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우수인재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업단위의 사회통합 지원만으로 한국에서 조기 출국하던 해외 우수인재들이 대거 국내정착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 수혜자의 대다수가 국내 정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수혜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특정 사업 단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외국인이 정착하고 싶은 환경, 즉 외국인 친화적 사회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 조성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